	<h2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2> <h3 style="text-align: center;">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	--	---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탁윤성 과장(2156-9780)	담당자	현지은 사무관(2156-9783)	
배포일	2015. 9. 25.(금)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2매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참석

- ☐ 서재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은 9.25일(금)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에 참석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 기존 금융규제과제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금융회사 위법행위 방지노력 등을 논의할 계획

< FSB 런던총회 의제 >

-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규제 강화
- 감독 당국 간 정보공유 확대
- 그간의 G20/FSB 금융규제과제 이행경과
- 금융회사 위법행위 방지 노력
- 회계, 감사, 공시 개선

- ☐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및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신흥국 부채수준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이 논의될 예정

- 또한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Global - Systemically Important Bank) 대상의 새로운 총손실 흡수력 규제* 기준을 확정지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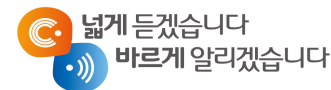
* 총손실흡수력(자기자본 + 상각·자본전환 용이한 부채)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

- ☐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경험 논의 세션에서, 서재홍 국제협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9.1일)을 소개할 계획

※ 자세한 FSB총회 종료 후 공개될 FSB 보도자료 참조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1.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 '11년 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가 FSB 2대 의장 수임 중

* 초대 의장 : 現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

FSB의 설립 경위

- (FSF)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은 '99.4월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금융 감독 및 검사 분야의 정보 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
- (FSB로 확대개편) '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합의하여 '09년 4월 출범

○ (FSB의 목적) FSB는 국제수준에서 각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고 선도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에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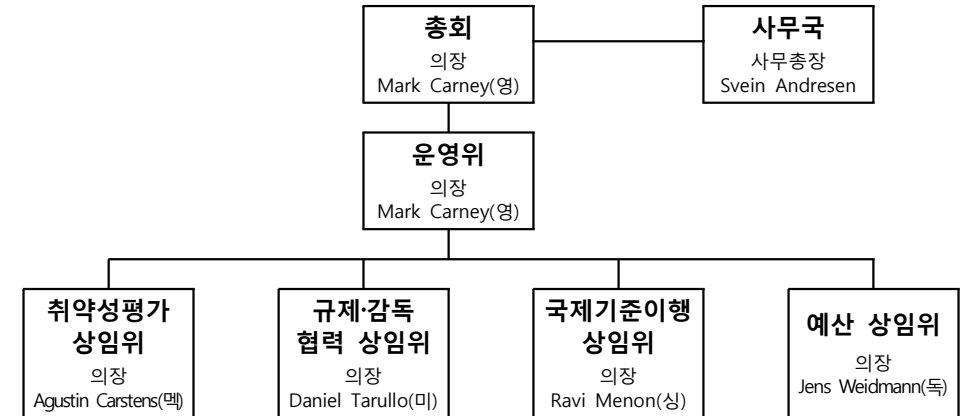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

FSB의 기능

-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조언과 감시
-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관련 조언과 감시
-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공동 정책개발
-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border risk management) 비상계획 수립 지원
-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IMF와 공조]

2. FSB 구성 및 한국 참여현황

□ (FSB회의체)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 (회원현황) 24개국 및 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감독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 참여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EU (이상 G20) 및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OECD, BIS,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 (참여현황) 금융위원회는 '09년6월 FSB에 가입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참석

-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 FSB논의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한 금융규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rule taker"에서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rule setter"로 위상 제고